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 성난 얼굴로 돌아보는 2016년 최저임금 투쟁

/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알바노조는 2016년이 시작되고 반년 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집요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과는 시급 6,470원, 월급으로는 1,352,230원. 2017년 우리 삶을 지배할 숫자로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래도 그 속에서 얻는 한계와 교훈을 바탕으로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 지난 3년을 돌이키며

지난 3년 최저임금 투쟁을 돌이켜 봤다. 각종 접거와 퍼포먼스를 통한 ‘이슈 파이팅’은 사회적 주목을 끌었고 사회적 요구로 연결되었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지닌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다. 사용자들의 동결 주장과 노동계의 인상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파행을 맞이하고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사에 따르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제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했다.

시기별로 보자면, 총선 국면에는 정당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6월 최저임금 결정 국면에는 마침 개원하는 20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적으로는 매년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해 온 터라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걱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이 누적되어, 과거에 했던 기습 시위나 접거 같은 방식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2016 최저임금 투쟁을 돌아보겠다.



2. 총선 국면

첫 포문은 각 정당들을 향했다. 이슈가 별로 없었던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하게 다뤄졌다. 각 당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약속했다. 이에 알바노조는 국민의당을 찾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야권이 연대할 것



을 호소했고 국민의당 역시 정책위의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번복하기는 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0년까지 9,000원 선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각 정당의 최저임금 공약을 분석하여 비교한 자료는 언론에 자주 인용되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비롯하여 알바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알바당’ 후보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함께 하며 유권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4월 30일~5월 1일 알바노조는 ‘알바데이 실천단’ 과 함께 알바데이 행사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야당이 승리하면서 대세가 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확인하고 노동계의 화두로 최저임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뜨거운 6월

알바노조는 6월 12일 최저임금이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을 예측했다. 우리는 공익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으로 봤고, 안타깝게도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공론화되었으며 법안으로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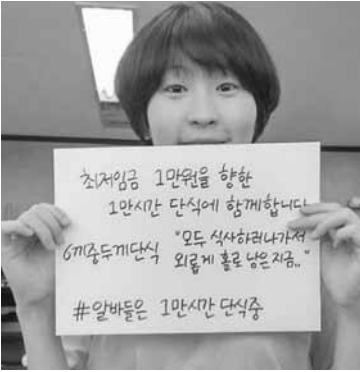




알바노조는 6월 16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첫날은 박정훈 위원장이, 그다음날은 이가현 대학사업팀장과 우람 정책팀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멀리 떨어진 건물이 아니라 국회 바로 정문 앞에서 농성하며 단식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경찰의 강제 철거에도

다시 버티고 앉았다. 더위와 비바람과 굶주림을 참으며 무려 3주를 국회 앞에서 버텼다.

수많은 고뇌가 있었다. 조바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반응이 없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원망스러웠다. 단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선까지 버텨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했고 사진의 배경으로 활용했다. 굶지 않았다면 우리 주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는 굶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알바노조 집행부의 단식과 동시에 연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알바들의 “1만 시간 단식”에 수많은 알바노동자가 참여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며칠 단식을 함께 했다. 7월 7일까지 무려 12,120시간, 1515끼니, 318명이 참여했다.

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걸렸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염원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 저명인사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의원이 농성장에 들러 우리의 입장을 경청했다. 종교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올리기도 했고, 의사들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 주기도 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환노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여 최저임금 투쟁에서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 보자고 요구했다.

국회는 이에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의 하한을 평균임금의 60%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갖고 오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같은 각종 독소 조항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자며 법안을 냈다.

비록 최저임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정해졌지만,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싹을 틔웠다. 변덕에 그 싹이 짓밟히지 않도록 감시와 요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바노조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 이르는 한 달을 뜨겁게 보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단식,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토론회, 간담회, 실천단, 1인시위, 퍼포먼스, 향의 방문, 면담, 성명, 동조 단식, 카드뉴스 발표, 방송 등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도, 노동계가 호소해도, 상인 단체에서 최저임금 올려도 괜찮다고 해도, 알바노조가 단식을 하고 있어도, 무력하게 파행으로 치닫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도무지 막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기단에 올라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다섯 명의 조합원이 유치장 신세를 졌다.

결국 7.3% 인상에 그친 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



한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빗발치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최저임금.

알바노조는 이 최저임금 6,470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끝이다. 정부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은 대표성을 갖춘 국회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형식으로 총체적 경제정책의 시야에서 정해져야 한다. 교훈은 명확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조교】**